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교사용 (KPRC-TF)의 개발과 타당화

홍 상 황[†] 우 순 연 황 순 택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진주이만성초등학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용으로 개발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의 문항을 교사가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교사용(KPRC-TF)을 구성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생 4~6학년 1,399명을 대상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186명의 담임교사가 KPRC-TF로 평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78~.94의 범위, 중앙치는 각각 .85, .86 이었고 SOM 척도점수를 제외하고는 교사용이 아동용과 부모용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113명의 아동을 교사 17명이 4주 간격으로 두 번 평정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91 범위, 중앙치는 .81으로 높았고 아동용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른 척도들은 거의 유사하였으나 VDL, DLQ, HPR 척도점수의 재검사 신뢰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용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KPRC 척도와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를 실시한 결과 KPRC 각 척도는 원래 측정하려고 한 영역을 재는 타당도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 원래 측정하고자 한 영역과 개념적, 경험적으로 상반되는 타당도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부모용, 아동용과 비교하고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성격평가, 교사, 아동

*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문항사용을 허락해주신 원저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 상 황 /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FAX : 055-740-1290 / E-mail : shhhong@cue.ac.kr

미국 공중위생국 정신건강보고서(Surgeon General's Report on Mental Health, 1999)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한 명이 학령기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11%는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병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민성길, 김한중 등, 1997; 민성길, 오경자 등, 1997; Rutter, Tizard, & Whitmore, 1970).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일차적으로 탐색(screening)하고 평가하기 위해 흔히 부모용 성격검사가 사용되어 왔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 지각 및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역을 기술하는 문항에 대한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어 정확하게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가장 일차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원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1991), BASC(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Reynolds & Kamphaus, 1992), PIC(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Wirt, Lachar, Klinedinst, & Seat, 1990)와 같은 대표적인 아동용 인벤토리형 성격검사들은 부모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와 KPI-C(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가 부모용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아동용 성격검사이다. K-CBCL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검사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며, KPI-C는 국내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KPI-C는 일부 척도의 문항구성과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문항수를 축소시킨 한국아동인

성평정척도(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로 개정되었다(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 2005).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나 평정은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지만, 부모의 정신병리, 스트레스, 성격과 같은 변인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수용의 정도,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 등이 영향을 주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장은진, 한미라, 정철호, 2001; 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Kolko & Kazdin, 1993; Richters, 1992). 또한 관찰가능한 행동변인의 경우 타인 평정이 신뢰롭지만 직접 관찰되지 않는 사고, 정서 등 내적 상태와 과정에 관한 변인의 경우 타인평정에 비해 자기보고가 더 신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Bird, Gould, & Staghezza, 1992). 이 때문에 자기보고가 가능한 연령에서는 보호자 평정 뿐 아니라 자기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도 활용된다. 특히 자기보고는 부모와 같은 외부 평정자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아동 자신이 경험하는 극히 주관적인 심리적 현상에 대한 신뢰로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CBCL을 아동과 청소년 자신이 보고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YSR(Youth Self-Report; Achenbach, 1991), BASC(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를 수정한 BASC-SRP(Self-Report of Personality; Reynolds & Kamphaus, 199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고형 검사도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외부 평가자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아동을 관찰하는 장면이나 맥락, 아동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평가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Achenbach et al., 1987).

이런 점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학교장면에서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학교장면은 문제행동이 드러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들의 생활과 학습이 주로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문제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한 상황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시기 아동들의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서 교사의 역할이 부모 못지 않게 강조되어 왔다. 아동기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학교장면의 교사들은 비교적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와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송수미, 김재환, 2002; 오경자, 하은혜, 배주미, 김영아, 고려원, 1999). 몇몇 아동용 성격검사가 부모용, 아동의 자기보고용 뿐 아니라 교사용이 개발되어 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CBCL과 BASC는 부모용, 아동의 자기보고용과 함께 교사용이 함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동 자신의 보고와 부모 및 교사의 보고는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Phares, Compas, & Howell, 1989). 이는 세 정보원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각 다른 지식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평정자의 동기적 및 비동기적 편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보완하여 취합하는 것은 개인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다차원적 성격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아동인성검사(KPI-C; 김승태 등, 1997)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작된 한국 아동인성평정척도(KPRC; 김지혜 등, 2005)의 교사용(KPRC-TF)을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구성한 KPRC 교사용(TF)의 문항을 확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43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담임 교사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대상아동의 신상정보가 누락되거나 총 누락문항의 수가 5% 이상인 자료를 제외한 1,39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아동 1,399명 중 여학생은 697명(49.80%)이었고 4학년 456명(33.60%), 5학년 488명(34.90%), 6학년 455명(32.50%), 평균연령은 10.46세($SD=0.92$)이었다. 평정에 참여한 교사는 총 186명(남 41명, 여 145명)이었고 평균 7.52명의 아동을 평정하였다. 자료수집 당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4~6학년 담임을 맡고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2.42세($SD=6.34$), 평균 재직기간은 118.48개월($SD=89.91$), 평균 담임일수는 124.92일($SD=33.60$)이었다. 그리고 KPRC 부모용, 자기보고용 및 교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부모 521명에게 자녀를 평정하게 하였다. 부모는 아버지 81명(15.54%), 어머니 408명(78.31%), 기타 32명(6.14%)명이었고, 이들의 학력은 대졸 179명(56.05%), 고졸 179명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표 본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평정한 교사의 특징										
<i>n</i> (여교사의 수)	18(10)	16(12)	13(9)	18(17)	20(15)	24(20)	18(15)	20(15)	22(17)	17(15)
평균연령 (<i>SD</i>)	33.57 (7.67)	31.44 (5.2)	35.23 (6.12)	28.58 (3.98)	35.32 (8.41)	35.02 (6.17)	33.07 (7.48)	30.92 (6.39)	30.82 (6.31)	34.83 (6.26)
아동 담임기간 (일수)	128.39 (43.48)	130.78 (28.41)	125.35 (14.32)	113.37 (21.82)	116.33 (94)	105.72 (36.96)	116.14 (14.58)	128.54 (49.84)	138.40 (71.20)	119.27 (18.13)
재직 개월 (<i>SD</i>)	141.51 (101.88)	110.79 (77.51)	152.00 (95.22)	64.83 (41.95)	151.82 (89.52)	151.86 (106.42)	128.55 (87.66)	74.83 (65.17)	83.47 (56.01)	166.71 (116.46)
대상아동의 특징										
<i>n</i>	143	135	130	113	152	159	128	153	137	149
여학생의 수 (%)	74 (51.7)	69 (51.5)	64 (49.2)	57 (51.8)	75 (49.3)	81 (51.3)	64 (50.4)	75 (49.0)	60 (45.8)	69 (50.0)
평균연령 (<i>SD</i>)	10.49 (.92)	10.49 (.96)	10.48 (.92)	10.18 (.86)	10.39 (.94)	10.55 (.90)	10.30 (.87)	10.43 (.95)	10.17 (1.81)	10.48 (.94)
학년별 학생 수										
4학년(%)	42 (29.4)	46 (34.1)	40 (30.8)	47 (41.6)	51 (33.6)	49 (31.0)	48 (37.8)	51 (33.3)	43 (32.8)	39 (28.1)
5학년(%)	60 (42.0)	39 (28.9)	40 (30.8)	39 (34.5)	51 (33.6)	59 (37.3)	48 (37.8)	55 (35.9)	47 (35.9)	50 (36.0)
6학년(%)	41 (28.7)	50 (37.0)	50 (38.5)	27 (23.9)	50 (32.9)	50 (31.6)	32 (24.4)	47 (30.7)	41 (31.3)	50 (36.0)
평정한 부모의 특징										
<i>n</i>	143	135	130	113	-	-	-	-	-	-
부/모의 수	21/120	20/98	18/102	22/88	-	-	-	-	-	-
평균연령 (<i>SD</i>)	37.99 (3.90)	38.53 (4.99)	37.51 (4.49)	38.05 (3.62)	-	-	-	-	-	-

주 1. 10개 표본에 모두 KPRC-TF를 실시하고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두 가지 검사를 더 실시하였다: 표본 I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CBCL-TF, 부모에게 KPRC, 아동에게 KPRC-CF, 표본 II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Conners 교사용척도, 표본 III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교사용 ADHD 평가척도(K-ARS), 표본 IV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재검사, 표본 V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Iowa 사회능력척도, 표본 VI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ADD-H 포괄적 교사평정척도(ACTeRs), 표본 VII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학업수행평가척도(APRS), 표본 VIII에는 교사에게 KPIRC-TF와 공격성 및 또래관계 평정척도, 표본 IX에는 교사에게 KPIRC-TF와 교사용 자아탄력성척도(ERS), 표본 X에는 교사에게 KPRC-TF와 행동차원평정척도(BDRS)를 실시하였음.

(34.35%), 중졸 10명(1.91%), 초등졸 3명(0.57%), 기타 37명(7.10%)이었다.

척도별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1,399명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타당도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타당도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이 많아서 표 1과 같이 10개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

KPRC-TF 예비문항

김지혜 등(2005)이 부모용으로 제작한 한국 아동인성평정척도(KPRC) 문항을 교사가 평정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먼저 초등학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교사 3명에게 KPRC의 목적, 척도의 구성과 측정영역 등을 소개하고 척도별로 문항을 분류하여, 부모용 문항과 최대한 의미를 같도록 하면서 교사가 평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취합하였다. 이렇게 먼저 문항을 수정한 후 KPRC의 부모용과 아동용 개발에 참여한 2인이 문항을 검토하였고, 수정한 문항이 부모용의 원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및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문항을 재수정 하였다.

타당도지표

KPRC-TF는 부모평정형으로 개발된 KPRC의 교사평정형이다. 따라서 본 KPRC-TF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은 부모용인 KPRC와 동일하다. 그리고 평정자의 차이에 따른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KPRC-TF 각 척도의 문항은 KPRC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을 그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KPRC 문항을 가

능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PRC 문항들을 수정한 KPRC-TF의 각 예비문항들이 검사 내적으로 적정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 문항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구성된 KPRC-TF가 이 검사의 모태가 되었던 부모평정용과 아동용을 외적 준거로 사용한 준거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외에 아동의 정신병리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사회적 능력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심리검사들과의 상관을 알아봄으로써 변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KPRC 부모용(PF)과 아동용(CRF). 부모용(PF)은 김지혜 등(2005)이 개정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를 사용하였다. KPRC는 무응답(?), 검사-재검사(Test-Retest, *T-R*), 허구(Lie, *L*), 빈도(Frequency, *F*) 척도 등 4개의 타당성척도와 자아탄력성척도(Ego resilience, *ERS*) 및 10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수는 총 179문항이다. 임상척도는 발달적인 면을 측정하는 언어발달(Verbal development, *VDL*), 동작발달(Physical Development, *PDL*) 척도, 정서적인 면을 측정하는 불안(Anxiety, *ANX*), 우울(Depression, *DEP*), 신체화(Somatization, *SOM*) 척도,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Delinquency, *DLQ*), 과잉행동(Hyperactivity, *HPR*) 척도, 정신병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한 정신증(Psychosis, *PSY*) 척도, 그리고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FAM*)와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 *SOC*) 척도 등의 관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평정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아동용(CF)은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의 문항을 수정하여 타당화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아동용(Children Report Form, KPRC-CRF; 홍상환, 황순택, 2004)를 사용하였다. 아동용의 척도구성은 부모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부모용 문항에서 아동용 문항으로 수정할 때 자아탄력성척도와 임상척도에서 문항간 상관계수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이 낮고 내적 합치도를 저하시키는 11문항, 동일한 의미로 수정된 2문항과 부모용의 빈도척도(FRQ)에서만 채점되다가 아동용의 빈도척도 구성에서 제외된 2문항 등 총 15문항을 제외하여 총 문항수는 164문항이다. ICN척도를 제외한 아동용의 내적 합치도는 .65~.85, 중앙치 .75이었고,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86범위, 중앙치 .78로 양호하였다

교사용 아동행동 조사표. 교사가 아동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Achenbach와 Edelbrock(1986)이 제작한 것을 김하정(1998)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용 아동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 Teacher's Report Form, CBCL-TF)는 부모용 아동행동조사표를 근거로 제작되었고 교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담가나 특수 교육가 등 아동의 행동에 대해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다른 일반인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사용 아동행동 조사표는 CBCL과 마찬가지로 1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문항을 학교상황에 적절하도록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CBCL과 척도구성 및 문항이 거의 동일하다.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118개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대해 3점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

제행동증후군척도는 CBCL과 마찬가지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등의 8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척도점수가 상승할수록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내적 합치도는 위축 .81, 신체증상 .66, 우울/불안 .80, 미성숙 .74, 사고의 문제 .69, 주의집중 .80, 비행 .62, 공격성 .94, 내재화문제 .84, 외현화문제 .91, 총문제행동 .94이었다.

학업수행평가척도.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수행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DuPaul, Rapport, 및 Perrillo(1991)가 제작한 학업수행평가척도(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APRS)를 박난숙과 오경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APRS는 학습능력, 학업수행 정도, 충동통제, 수업참여 정도 등을 재는 19문항을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하며, 점수 범위는 0~95점이고 점수가 클수록 학습태도가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전체문항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교사용 자아탄력성척도.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2001)이 부모보고에 의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는 부모보고형으로 개발된 자아탄력성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 문항을 검토한 결과 부모보고형에서 “나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주지 않아 걱정될 때가 있다”는 문항은 “나는 이 아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주지 않아 걱정될 때가 있다”로 수정하면 교사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

단되어 24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윤현희 등(2001)의 연구에서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척도의 경우 또래 관계와 낙천성, 공감과 자기수용, 과제에 대한 자신감과 집중력, 이해력, 리더쉽 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교사용 공격성측정. Dodge(1980)가 학교나 집 밖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공격적 행동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5개 문항을 광금주(1992)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광금주(199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5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행동차원평정척도. Bullock과 Wilson(1989)이 제작한 행동차원평정척도(Behavior Dimensions Rating Scale, BDRS)를 박정원(1992)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행청소년이 나타내는 공격성, 무책임감과 부주의, 사회적 위축, 두려움과 불안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행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2주 이상 대상아동을 관찰한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정상학급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 정신병원 수용아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체 43문항을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는 .87~.9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91, 평정

자간 신뢰도는 .64~.68이었다(Bullock & Wilson, 1989). 본 연구에서 수집한 149명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공격성(14문항), 무책임과 부주의(10문항), 사회적 위축(13문항), 두려움과 불안(9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9, .92, .92, .86이었다.

한국어판 교사용 ADHD 평가척도. 부모, 교사용 ADHD 평가척도(ADHD Rating Scale, ARS)는 DuPaul(1991)이 학령기 아동의 부주의성과 과잉행동-충동성 등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유경, 노주선, 김영신, 고선규, 고윤주(2002)가 번안한 한국어판 부모 및 교사용 ADHD 평가척도(K-ARS) 중에서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SM-IV의 ADHD 진단기준으로 이루어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유경 등(2002)의 연구에서 교사용의 내적 합치도는 부주의성 .77~.87, 과잉행동-충동성 .78~.87, 전체문항은 .82~.89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0명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교사용 전체 18문항, 부주의성, 과잉행동-충동성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5, .94, .91이었다.

한국어판 Conners 교사용 평가척도. Conners 부모 및 교사용 평가척도(Conners Parent and Teacher Rating Scale)는 Conners(1989)가 3~17세 아동의 과잉행동과 기타 다른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부모용과 교사용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희 등(2003)이 번안하여 연구한 한국어판 Conners 부모 및 교사용 평가척도(K-CRS) 중에서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교사용 척도는 총 2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품행문제, 과잉행동, 부주의-피동성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는 .88~.93 범위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5명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교사용 전체 28문항, 부주의 피동성, 과잉행동, 품행문제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 .83, .78, .78이었다.

ADD-H 포괄적 교사평정척도. Ullmann, Sleanor 및 Spraguc(1985)가 5~12세 아동에서 나타나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과 관련된 측면을 교사가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ADD-H 포괄적 교사평정척도(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Comprehensive Teacher Rating Scale, ACTeRs)를 서경희 등(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의집중 6문항, 과잉행동 5문항, 사회적 기술 7문항, 적대적 행동 6문항 등 4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5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4문항, 주의집중, 과잉행동, 사회적 기술, 적대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5, .93, .89, .89, .91이었다.

교사용 또래관계측정. Pettit, Doge 및 Brown (1988)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지, 다른 아동들로부터 수용되는지 또는 배척되는지에 관해 교사가 아동을 평정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마송희(199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5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Iowa 사회적 능력척도 교사평정형.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Pease, Clark 및 Crase(1981)가 개발한 Iowa Social Competency Scale: School Form을 송나리(1993)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8문항을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유능성, 지도성, 방해성, 교사에 대한 애정,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5가지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7, .93, .86, .89, .73이었고 전체 28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4이었다(송나리, 1993). 본 연구에서 수집한 159명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전체 28문항, 유능성, 지도성, 방해성, 교사에 대한 애정 및 불안정성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0, .91, .88, .91, .83, .64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개별 척도별로 척도문항의 5%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자료 등을 제외한 총 1,399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부모용과 아동용 문항에 근거해서 교사용 문항으로 수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항간 상관, 교정된 문항-전체상관 및 내적 합치도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척도별로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부모용과 아동용의 검사-재검사 척도($T-R$ 척도, 또는 비일관성척도, ICN), 빈도척도(F)의 문항구성을 근거로 ICN 은 문항간 상관, F 는 시인율을 검토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재구성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구하고 다변량 분석을 통해 성과 연령에 따른 점수차이를 비교하였다. 넷째, 타당도 검증 위해 KPRC의 척도와 개념적으로 관련있는 여러 타당도지표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교사용의 최종 문항선정과 척도구성

L척도

L척도는 아동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점이나 약점을 부인하여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술하려는 부모의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교사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고 교사는 아동 자신이나 아동의 부모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척도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비일관성척도(ICN)

교사평정의 반응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KPRC 아동보고용에서 구성한 비일관성척도(inconsistency; ICN) 10개 문항쌍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10개 문항쌍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8개 문항쌍은 상관이 .42~.71로 적절하였으나 2개 문항쌍은 상관이 각각 .29, .33으로 낮았다. 그래서 아동용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항의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비일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항쌍이 의미적 관련성이 높으면서 전체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면 효과적이므로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

쌍 중에서 인접해 있는 문항쌍을 제외하고 의미적 관련성이 높은 2개 문항쌍을 추가시켰다.

빈도척도(F)

F척도는 정상집단에서 부적응적 문제를 시인하는 빈도가 낮은 문항으로 구성해야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문제적 수검태도나 정신적 혼란을 밝히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교사용으로 수정된 15문항의 평균 시인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5개 문항의 평균 시인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서 문항구성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15문항은 시인율은 .02~.44의 범위이었고 시인율 평균은 .24($SD=.14$), 중앙치는 .27이었다.

자아탄력성척도(ERS)와 임상척도

각 척도별로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거나 역상관이 있는 문항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개별 문항을 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과 개별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증가를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척도 내에서 문항간 상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이 매우 낮고 내적 합치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문항은 없었다. 가족관계척도(FAM) 18문항의 시인율을 검토한 결과 0.1~1.7범위, 평균 시인율은 0.66($SD=.52$)이었고 18개 문항 중 12개 문항은 시인율이 1.0 미만이었다. 그리고 가족관계적 측면은 교사가 평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교사용 척도구성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척도의 문항내용이 가족관계를 잘 망라하고 있고 이 척도가 다소 타당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어떤 문항에 서라도 1점 이상으로 평정되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문항간 상관, 교정된 문항 총점 상관과 내적 합치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척도구성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신뢰도

교사용의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비일관성 척도를 제외한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78~.94의 범위에었고 중앙치는 각각 .85, .86이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

표 2. 척도의 신뢰도 계수

	문항수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ICN	20	.50(.40)	.74(.67)	.29(.77)
F	15	.80(.71/.64)	.82(.73/.71)	.86(.83)
ERS	19	.90(.81/.67)	.90(.80/.79)	.75(.78)
VDL	10	.85(.72/.71)	.82(.71/.73)	.88(.75)
PDL	11	.80(.62/.62)	.78(.65/.68)	.78(.77)
ANX	15	.82(.76/.74)	.86(.82/.76)	.77(.77)
DEP	14	.88(.77/.65)	.86(.75/.73)	.80(.82)
SOM	15	.78(.80/.71)	.79(.80/.78)	.77(.81)
DLQ	13	.88(.68/.76)	.89(.71/.81)	.87(.75)
HPR	19	.94(.85/.64)	.94(.85/.75)	.91(.86)
FAM	18	.84(.68/.79)	.88(.79/.76)	.81(.83)
SOC	13	.83(.69/.71)	.85(.74/.78)	.79(.77)
PSY	18	.90(.81/.67)	.89(.84/.72)	.83(.80)

- 주 1. ICN: Inconsistency(비일관성), F: Frequency(빈도), ERS: Ego Resilience(자아탄력성), VDL: Verbal Development(언어발달), PDL: Physical Development(동작발달), ANX: Anxiety(불안), DEP: Depression(우울), SOM: Somatization(신체화), DLQ: Delinquency(비행), HPR: Hyperactivity(과잉행동), FAM: Family Relationship(가족관계), SOC: Social Relationship(사회관계), PSY: Psychosis(정신증).
2. 척도의 문항수를 모두 합하면 200문항이지만, 척도 또는 척도에 중복되는 4문항을 제외하면 총 문항수는 152문항임.
3.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4~6학년 1,399명을 180명의 교사가 평정한 자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명을 15명의 교사가 평정한 자료로 계산한 결과임.
4. ICN의 () 안은 아동용의 결과임(홍상환, 황순택, 2004).
5.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의 () 안 좌측은 KPRC 아동용 개발 표본 N=1,575의 결과, 홍상환, 황순택(2004)이고 우측은 KPI-C 부모용 규준표본 N=2,386의 결과임(홍창희 등 2001).
6. 검사-재검사 신뢰도 ()의 계수는 아동용의 결과임.

한 결과 비일관성척도를 제외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91 범위, 중앙치는 .81이었다.

타당도

평정자간 일치도

교사용 13개 척도 중에서 비일관성척도를 제외한 12개 척도점수에 대해 교사-아동, 교사-부모, 부모-아동 간의 평정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아동에게 아동용, 아동의 부모와 교사에게는 각각 부모용과 교사용을 실시하여, 각 척도마다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사-아동간 평정일치도는 .13~.49 범위, 평균 .32, 교사-부모간 평정

일치도는 -.05~.38, 평균 .20, 부모-아동간 평정일치도는 .15~.55, 평균 .34이었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패턴을 F 척도, ERS 척도 및 임상척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F척도는 또래관계($r(144)=-.72, p<.01$), 학업수행($r(117)=-.65, p<.01$), 자아탄력성($r(123)=-.64, p<.01$), 아동의 사회적 능력($r(138)=-.62, p<.01$)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는 부적 상관, 부주의성-피동성($r(143)=.67, p<.01$), 사고의 문제($r(140)=.64, p<.01$), 사회적 미성숙($r(140)=.60, p<.01$), 위축($r(140)=.59, p<.01$), 우울/불안($r(138)=.56, p<.01$)과 같은 아동에서 문제시되는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RS 척도는 아동에게서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문제와는 부적 상관, 긍정적 특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임상척도에서 VDL, PDL 척도와 다른 타당도지표와의 상관패턴은 매우 유사하였는데, F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유능성, 학업수행과 같은 특성과는 부적 상관, 사회적 위축, 부주의와 같은 특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VDL, PDL 척도를 제외한 8개 임상척도는 동일한 영역을 측정하는 각각의 타당도지표들과는 .50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고, 상반되는 특성을 측정하는 타당도지표와는 -.50이상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NX 척도는 CBCL-TF의 우울 불안($r(136)=.65, p<.01$), Iowa 사회적 능력척도의 사회적 불안정성($r(143)=$

표 3. 평정자간 일치도

	교사-아동	교사-부모	부모-아동
F	.33**	.19*	.22*
ERS	.36**	.15	.38**
VDL	.42**	.24**	.36**
PDL	.13	.21*	.15
ANX	.18*	.16	.26**
DEP	.39**	.24**	.43**
SOM	.26**	-.05	.32**
DLQ	.39**	.21*	.33**
HPR	.35**	.31**	.55**
EAM	.30**	.38**	.40**
SOC	.49**	.33**	.49**
PSY	.19*	.08	.15

주 1. 아동 143명에 대해 교사 28명, 부모 143명이 평정한 결과임.

2. * $p<.05$, ** $p<.01$

표 4. 타당도지표와의 상관

타당도지표	KPRC, TF의 척도											
	F	ERS	VDL	PDL	ANX	DEP	SOM	DLQ	HPR	FAM	SOC	PSY
CBCL 교사용(TF)												
위축	.59	-.52	.55	.50	.55	.73	.16	.09	.15	.42	.69	.49
신체증상	.37	-.15	.23	.11	.33	.39	.49	.07	.06	.37	.19	.28
우울/불안	.56	-.45	.51	.32	.65	.51	.14	.33	.32	.42	.39	.67
사회적 미성숙	.60	-.66	.60	.62	.58	.63	.08	.29	.37	.41	.64	.65
사고의 문제	.64	-.37	.58	.29	.50	.44	.22	.46	.46	.51	.27	.74
주의집중문제	.63	-.59	.68	.47	.52	.53	.04	.52	.71	.48	.38	.68
비행	.31	-.15	.42	.14	.04	-.06	-.33	.74	.68	.33	-.17	.44
공격성	.41	-.41	.32	.03	.19	.20	-.13	.86	.80	.35	-.05	.65
내재화문제	.64	-.49	.57	.43	.67	.68	.27	.22	.24	.49	.54	.64
외현화문제	.48	-.37	.41	.28	.16	.09	-.11	.89	.72	.43	-.10	.74
총문제행동	.68	-.59	.58	.51	.57	.48	.11	.70	.56	.59	.28	.85
학습수행평가척도 (APRS)	-.65	.61	-.81	-.72	-.38	-.55	-.23	-.47	-.59	-.43	-.51	-.52
교사용 자아탄력성척도	-.64	.84	-.64	-.67	-.44	-.71	-.41	-.57	-.53	-.62	-.64	-.49
행동차원평정척도 (BDRS)												
공격성	.51	-.65	.36	.38	.21	.46	.26	.72	.55	.51	.32	.53
무책임과 부주의	.54	-.56	.58	.55	.27	.51	.33	.57	.63	.49	.35	.51
사회적 위축	.53	-.71	.53	.63	.57	.81	.46	.16	.04	.32	.84	.47
두려움과 불안	.55	-.70	.53	.56	.49	.68	.40	.45	.35	.48	.59	.52
교사용 공격성척도	.29	-.33	.25	.12	-.02	.06	.02	.78	.70	.27	-.17	.43
ADHD 평가척도 교사용 (K-ARS)												
부주의성	.48	-.43	.43	.38	.28	.31	.28	.67	.83	.43	.14	.55
과잉활동-충동성	.37	-.22	.36	.23	.19	.10	.26	.68	.84	.41	-.15	.48
총점	.46	-.35	.42	.33	.25	.23	.30	.71	.88	.45	.01	.54
Conners 척도												
부주의성-과잉성	.67	-.56	.74	.67	.47	.62	.38	.36	.52	.38	.42	.59
과잉행동	.31	-.29	.24	.21	.17	.14	.10	.62	.73	.26	-.12	.58
품행문제	.16	-.29	.13	.13	.15	.10	.14	.57	.57	.16	-.09	.54
총점	.44	-.49	.46	.44	.32	.39	.24	.63	.75	.27	.11	.71
ADD-H 포괄적 교사평정척도 (ACTeRs)												
주의집중	-.64	.67	-.70	-.64	-.26	-.48	-.13	-.66	-.77	-.59	-.33	-.58
과잉행동	.51	-.47	.42	.39	.19	.27	.12	.78	.80	.47	.07	.62
사회적 기술	-.57	.83	-.65	-.69	-.42	-.69	-.23	-.44	-.43	-.48	-.65	-.56
적대감	.46	-.51	.26	.28	.07	.23	.15	.83	.67	.39	.01	.55
총점 (*)	.66	-.76	.63	.62	.29	.51	.18	.81	.80	.60	.33	.69
교사용 또래관계측정	-.72	.76	-.57	-.59	-.47	-.71	-.33	-.33	-.34	-.46	-.78	-.64
Iowa 사회적 능력척도 교사용												
유능성	-.57	.65	-.67	-.58	-.31	-.58	-.23	-.64	-.62	-.49	-.34	-.53
지도성	-.56	.71	-.58	-.59	-.41	-.71	-.26	-.38	-.30	-.46	-.66	-.45
방해성	.37	-.43	.25	.06	.15	.21	.00	.63	.56	.38	.05	.42
교사에 대한 애정	-.10	.22	-.24	-.18	.06	-.12	-.12	-.21	-.21	-.07	-.04	-.11
불안정성	.43	-.39	.34	.31	.66	.42	.35	.19	.22	.32	.48	.39
총점 (*)	-.62	.76	-.65	-.53	-.38	-.62	-.23	-.70	-.64	-.53	-.42	-.60

주 1. (*): ADD-H 포괄적 교사평정척도의 총점은 주의집중과 사회적 기술의 문항, Iowa 사회적 능력척도의 총점은 방해성과 불안정성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계산하였음.

.66, $p < .01$), BDRS의 사회적 위축($r(121) = .57$,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또래관계($r(147) = -.47$, $p < .01$), 자아탄력성($r(126) = -.44$, $p < .01$), 학업수행($r(119) = -.38$,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2) DEP척도는 BDRS의 사회적 위축($r(120) = .81$, $p < .01$), 두려움과 불안($r(118) = .68$, $p < .01$), CBCL-TF의 위축($r(138) = .73$, $p < .01$), 사회적 미성숙($r(138) = .63$,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또래관계($r(150) = -.71$, $p < .01$), 지도성($r(138) = .71$, $p < .01$), ACTeRs의 사회적 기술($r(145) = -.69$,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3) SOM척도는 CBCL-TF의 신체증상($r(137) = .49$, $p < .01$), BDRS의 사회적 위축($r(119) = .46$,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자아탄력성($r(125) = -.41$, $p < .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4) DLQ척도는 비행청소년이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CBCL-TF의 공격성($r(140) = .86$, $p < .01$), 비행($r(140) = .74$, $p < .01$), 교사용 공격성($r(149) = .78$, $p < .01$), BDRS의 공격성($r(120) = .72$, $p < .01$), ACTeRs의 적대감($r(145) = .83$, $p < .01$)과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 총점($r(140) = .70$, $p < .01$), 자아탄력성($r(125) = -.57$, $p < .01$), 학업수행($r(119) = -.47$, $p < .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5) HPR척도는 ADHD 평가척도 교사용($r(123) = .88$, $p < .01$), ADD-H 포괄적 교사평정척도($r(139) = .80$, $p < .01$), Conners 척도($r(126) = .75$, $p < .01$)와 같은 ADHD를 진단하기 위한 개별 척도와 그 하위영역 점수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Iowa 사회적 능력 총점($r(130) = -.64$, $p < .01$), 자아탄력성($r(124) = -.53$, $p < .01$), 학업수행($r(119) = -.47$, $p < .01$)과는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DLQ와 HPR 척도는 다른

타당도지표와의 상관패턴이 매우 유사하면서 DLQ 척도는 비행, 공격성, 적대감, HPR척도는 부주의와 과잉행동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6)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를 평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교사용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FAM척도의 수렴타당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가족역기능은 아동의 자아탄력성($r(121) = -.62$, $p < .01$), 학업수행($r(116) = -.43$, $p < .01$), 사회적 능력($r(126) = -.53$, $p < .01$)과 부적 상관이 있고 CBCL-TF 척도와 .33에서 .51 범위의 정적 상관이 있으므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적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7) SOC척도는 CBCL-TF의 위축($r(140) = .69$, $p < .01$), 사회적 미성숙($r(141) = .65$, $p < .01$), BDRS의 사회적 위축($r(121) = .84$, $p < .01$), 두려움과 불안($r(119) = .59$, $p < .01$)과 높은 정적 상관, 또래관계($r(150) = -.77$, $p < .01$), 지도성($r(141) = -.66$, $p < .01$), 사회적 기술($r(141) = -.66$, $p < .01$), 자아탄력성($r(126) = -.64$, $p < .01$)과는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8) PSY척도는 CBCL-TF의 척도와 .28 ~.85 범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체증상($r(139) = .28$, $p < .01$)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 또래관계($r(149) = -.64$, $p < .01$), 사회적 능력($r(138) = -.60$, $p < .01$), 자아탄력성($r(125) = -.49$, $p < .01$)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척도간 상관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99명의 자료를 근거로 척도점수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는 아동용 척도간의 상관홍상환, 황순택, 2004)도 같이 제시하였는데, 교사용과 아동용의 척도간 상관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교사용 척도간 상관에서 ICN척도는 ERS척도와

표 5. 교사용 척도간 상관

	ICN	F	ERS	VDL	PDL	ANX	DEP	SOM	DLQ	HPR	FAM	SOC	PSY
ICN	-	.30	-.19	.35	.34	.25	.33	.29	.32	.34	.25	.20	.40
F	.24	-	-.47	.63	.49	.48	.60	.49	.53	.51	.61	.49	.70
ERS	-.30	-.65	-	-.45	-.30	-.38	-.72	-.36	-.48	-.39	-.57	-.59	-.39
VDL	.30	.76	-.53	-	.59	.42	.47	.37	.49	.54	.45	.41	.58
PDL	.34	.65	-.57	.75	-	.48	.43	.37	.40	.49	.28	.35	.53
ANX	.22	.52	-.47	.49	.56	-	.61	.52	.43	.50	.30	.49	.65
DEP	.23	.72	-.77	.60	.63	.70	-	.56	.48	.43	.54	.68	.63
SOM	.31	.42	-.34	.37	.49	.51	.50	-	.36	.36	.30	.35	.52
DLQ	.22	.60	-.58	.50	.41	.23	.37	.26	-	.68	.45	.27	.61
HPR	.20	.56	-.40	.59	.45	.26	.30	.22	.79	-	.40	.20	.64
FAM	.18	.74	-.57	.52	.42	.38	.57	.32	.54	.49	-	.35	.43
SOC	.22	.53	-.65	.49	.58	.65	.81	.35	.10	.04	.35	-	.43
PSY	.27	.78	-.60	.69	.64	.59	.64	.42	.68	.65	.53	.47	-

주 1. 대각선 아래는 교사용 척도간 상관본 연구에서 수집한 N=1,399), 대각선 위는 아동용의 척도간 상관임(N=1,575, 홍상황, 황순택, 2004).

부적 상관($r(1399)=-.30, p<.01$) 나머지 다른 척도와는 .18~.34범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F 척도는 ERS 척도($r(1399)=-.65, p<.01$)와 부적 상관, ICN, SOM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와는 .50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ERS 척도는 다른 모든 척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상대적으로 DEP($r(1399)=-.77, p<.01$), SOC($r(1399)=-.65, p<.01$), PSY($r(1399)=-.60, p<.01$) 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나머지 9개 임상척도에서는 SOC와 DLQ($r(1399)=.10, p<.01$), SOC와 HPR($r(1399)=.04, ns$) 척도 간에 상관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22~.81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VDL척도는 PDL($r(1399)=.75, p<.01$), PSY($r(1399)=.69, p<.01$) 척도, ANX척도는 DEP($r(1399)=.70, p<.01$), SOC($r(1399)=.65, p<.01$) 척도, DEP

척도는 SOC($r(1399)=.81, p<.01$), PSY($r(1399)=.64, p<.01$) 척도, DLQ 척도는 HPR($r(1399)=.79, p<.01$), PSY($r(1399)=.68, p<.01$) 척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다.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

13개 척도점수의 성과 연령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성과 연령별에 따라 척도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 남, 여)×3(연령; 4, 5, 6학년)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다변량통계치인 Wilks's Lamda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성($F(13, 1381)=21.388, p<.001$)과 연령($F(26, 2764)=2.284, p<.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F(26,$

표 6.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 체			4학년			5학년			6학년		
	남 (n=702)	여 (n=697)	전체 (n=1,399)	남 (n=235)	여 (n=221)	전체 (n=456)	남 (n=248)	여 (n=240)	전체 (n=488)	남 (n=219)	여 (n=236)	전체 (n=455)
ICN	5.44 (2.41)	5.05 (2.46)	5.25 (2.44)	5.52 (2.59)	4.97 (2.28)	5.25 (2.46)	5.32 (2.28)	5.05 (2.48)	5.18 (2.38)	5.51 (2.37)	5.12 (2.59)	5.31 (2.49)
F	3.94 (4.93)	3.08 (4.26)	3.52 (4.63)	3.71 (4.58)	2.29 (3.23)	3.02 _b (4.04)	4.06 (5.39)	3.02 (4.28)	3.54 _{ab} (4.90)	4.06 (4.75)	3.89 (4.90)	3.98 _a (4.83)
ERS	32.95 (10.55)	34.43 (10.08)	33.69 (10.34)	33.43 (10.12)	35.45 (9.63)	34.41 (9.93)	32.59 (10.87)	34.27 (9.93)	33.42 (10.44)	32.84 (10.66)	33.63 (10.60)	33.25 _b (10.63)
VDL	4.76 (4.73)	3.39 (3.87)	4.08 (4.38)	4.53 (4.51)	3.08 (3.53)	3.83 (4.12)	4.65 (5.17)	3.19 (3.98)	3.93 (4.67)	5.15 (4.45)	3.88 (4.03)	4.49 (4.28)
PDL	6.78 (4.58)	5.97 (4.16)	6.38 (4.39)	6.54 (4.46)	5.52 (3.85)	6.05 (4.20)	6.72 (4.74)	5.95 (4.05)	6.34 (4.43)	7.11 (4.52)	6.39 (4.50)	6.74 (4.52)
ANX	8.40 (6.03)	9.67 (6.51)	9.03 (6.30)	8.29 (5.89)	9.29 (6.13)	8.78 _{ab} (6.02)	7.87 (5.99)	9.50 (6.47)	8.67 _b (6.28)	9.13 (6.17)	10.20 (6.88)	9.68 _a (6.56)
DEP	9.93 (6.84)	9.85 (6.86)	9.89 (6.84)	9.54 (6.87)	8.50 (5.74)	9.04 _b (6.36)	10.04 (6.84)	10.07 (6.91)	10.06 _{ab} (6.87)	10.22 (6.82)	10.88 (7.57)	10.56 _a (7.22)
SOM	7.55 (5.73)	7.94 (5.84)	7.75 (5.79)	7.43 (5.56)	6.96 (5.07)	7.20 _b (5.33)	6.97 (5.34)	7.73 (5.68)	7.34 _b (5.52)	8.34 (6.26)	9.08 (6.47)	8.72 _a (6.37)
DLQ	8.00 (6.07)	5.04 (4.76)	6.53 (5.65)	7.49 (5.53)	4.43 (4.26)	6.06 _b (5.19)	8.13 (6.44)	4.58 (4.17)	6.39 _{ab} (5.72)	8.30 (6.21)	6.08 (5.54)	7.15 _a (5.97)
HPR	15.42 (12.26)	7.93 (8.27)	11.69 (11.11)	14.79 (11.89)	6.98 (7.97)	11.00 (10.90)	15.33 (12.68)	7.24 (7.76)	11.35 (11.29)	16.20 (12.16)	9.53 (8.82)	12.74 (11.06)
FAM	12.11 (8.30)	10.93 (7.41)	11.52 (7.89)	12.16 (8.53)	9.58 (6.11)	10.91 _b (7.56)	11.88 (8.53)	10.73 (7.57)	11.31 _{ab} (8.09)	12.31 (7.79)	12.39 (8.09)	12.35 _a (7.94)
SOC	11.32 (6.30)	12.30 (6.79)	11.81 (6.56)	11.44 (6.22)	11.85 (6.28)	11.64 (6.24)	11.33 (6.57)	12.48 (6.99)	11.89 (6.79)	11.17 (6.09)	12.56 (7.05)	11.89 (6.63)
PSY	7.73 (7.89)	5.70 (6.37)	6.72 (7.24)	7.11 (7.14)	4.86 (5.49)	6.02 _b (6.49)	7.58 (8.38)	5.20 (6.12)	6.41 _b (7.45)	8.56 (8.03)	7.01 (7.15)	7.76 _a (7.62)

주 1.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a>b, p<.05).

2764)=.920, *m*)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393)=12.738, p<.001$, $ERS(F(1, 1393)=$
 단변량분석 결과 13개 척도 중에서 $DEP(F(1, 1393)=.097, m)$ 와 $SOM(F(1, 1393)=1.213, m)$ 척
 도를 제외한 $ICN(F(1, 1393)=9.523, p<.01)$, $F(1, 1393)=7.333, p<.01$, $VDL(F(1, 1393)=36.259, p<.001)$,
 $PDL(F(1, 1393)=12.635, p<.001)$, $ANX(F(1, 1393)=13.531, p<.001)$, $DLQ(F(1, 1393)=104.617,$

$p < .001$), $HPR(F(1, 1393)=181.351, p < .001)$, $FAM(F(1, 1393)=8.369, p < .01)$, $SOC(F(1, 1393)=7.824, p < .01)$, $PSY(F(1, 1393)=29.242, p < .001)$ 척도 등 11개 척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중에서 ERS , ANX 척도점수는 여학생, 나머지 척도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았다.

연령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ICN(F(2, 1396)=.293, ns)$, $ERS(F(2, 1396)=1.678, ns)$, $VDL(F(2, 1396)=3.011, ns)$, $PDL(F(2, 1396)=2.857, ns)$, $HPR(F(2, 1396)=3.123, ns)$, $SOC(F(2, 1396)=.228, ns)$ 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F(2, 1396)=4.864, p < .01)$, $ANX(F(2, 1396)=3.627, p < .05)$, $DEP(F(2, 1396)=5.894, p < .01)$, $SOM(F(2, 1396)=9.807, p < .001)$, $DLQ(F(2, 1396)=4.494, p < .01)$, $FAM(F(2, 1396)=4.098, p < .05)$, $PSY(F(2, 1396)=7.325, p < .001)$ 척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으로 사후비교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사후비교한 결과 F , DEP , DLQ , FAM 척도점수는 4학년과 5학년,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학년보다는 6학년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ANX 척도점수는 4학년과 5학년, 4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5학년보다 6학년이 높았고 SOM , PSY 척도점수는 4학년과 5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 5학년보다 6학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 의

행동의 상황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심리평

가 과정에서 다양한 장면에서의 행동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동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또는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또한 교사는 학교라는 특수한 장면에서 부모나 다른 관찰자가 평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부모 다음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아동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보고 또는 교사평정 자료는 매우 가치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동 성격검사의 경우 흔히 자기보고와 함께 부모평정과 교사평정을 위한 검사가 병렬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다차원적 아동용 성격검사로서 자기보고, 부모평정 및 교사평정을 같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다차원적 성격평가에 유용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의 부모용 문항을 교사가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의 교사용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모용 문항을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및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용 문항으로 수정하여, 초등학생들을 그들의 담임교사가 평정하게 하고, 타당도 측정을 위해 다양한 관련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의 내용, 문항간 상관, 문항 시인율, 교정된 문항-척도총점 상관, 문항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분석하여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3개 척도, 149 문항으로 이루어진 KPRC 교사용을 확정하였다.

KPRC 교사용 13개 척도 중 ICN 척도를 제외한 12개 척도의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78~.94의 범위, 중앙치는 각각 .85, .86이었다. 이러한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 계수는 SOM척도를 제외하고는 아동용과 부모용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이다. 특히 HPR, DLQ, SOC, PDL, VDL, ERS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아동용, 부모용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장면에서 과잉행동, 비행, 교우관계, 운동 및 언어발달과 같은 영역에 대해 교사평정을 통해 신뢰로운 평가가 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한 결과 비일관성척도를 제외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5~.91 범위, 중앙치는 .81으로 높았고 아동용과 비교했을 때 다른 척도들은 거의 유사하였으나 VDL, DLQ, HPR 척도점수의 재검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용의 척도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따라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정자간 일치도, 여러 타당도지표와의 상관, 척도간 상관 및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사-아동간 평정일치도는 .13~.49범위($M=.32$), 교사-부모간 평정일치도는 -.05~.38범위($M=.20$), 부모-아동간 평정일치도는 .15~.55범위($M=.34$)이었다. 평정자간 일치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결과들(하은혜 등, 1998; Achenbach et al., 1987; Edelbrock, Costello, Dulcan, Calabro, & Kala, 1986)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부모보다는 교사-아동, 부모-아동의 평정일치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교사-아동간 평정일치도와 부모-아동간 평정일치도를 비교해보면 DEP, SOM, HPR, FAM 척도점수는 부모-아동의 평정일치도, F, VDL, DLQ 척도점수는 교사-아동의 평정일치도가 다소 높고, ERS, PDL, SOC, PSY

척도점수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M 척도점수의 평정일치도는 교사-아동 .26, 부모-아동 .32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교사-부모는 -.05로 매우 낮고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ANX 척도점수의 평정일치도는 교사-아동 .18, 부모-아동 .26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교사-부모는 .16으로 낮고 유의미하지도 않았으며 PSY 척도점수도 교사-부모 .08로 매우 낮았다. 이는 신체화, 불안, 정신병적 경향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전혀 달리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평정자에 따라 척도점수간의 평정일치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각각의 평정자가 우선적으로 지각하여 보고하는 문제영역이 다르다는 Achenbach 등(1987) 과 Edelbrock 등(1986)의 지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기보고와 외부관찰자에 의한 평정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검토해본 결과 12개 척도의 타당도는 매우 우수하였다. F척도는 또래관계, 학업수행, 자아탄력성,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는 부적 상관, 부주의성·과동성, 사고의 문제, 사회적 미성숙, 위축, 우울/불안과 같은 아동에서 문제시되는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RS 척도는 아동에게서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문제와는 부적 상관, 긍정적 특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임상척도에서 VDL, PDL 척도와 다른 타당도지표와의 상관패턴은 매우 유사하였는데, F척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유능성, 학업수행과 같은 특성과는 부적 상관, 사회적 위

축, 부주의와 같은 특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VDL*, *PDL* 척도를 제외한 8개 임상척도는 동일한 영역을 측정하는 각각의 타당도지표들과는 .50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고 상반되는 특성을 측정하는 타당도지표와는 -.50이상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99명의 자료를 근거로 척도점수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교사용의 척도간 상관패턴은 아동용 결과(홍상황과 황순택, 2004)와 매우 유사하였다. *F*척도는 *ERS* 척도와 부적 상관, *ICN*, *SOM*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척도와는 .50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F*척도가 정상집단에서 시인빈도가 낮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신병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임상척도의 점수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정신병리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적응잠재력을 측정하는 *ERS* 척도점수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ERS* 척도는 다른 모든 척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상대적으로 *DEP*, *SOC*, *PSY* 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나머지 9개 임상척도에서는 *SOC*와 *DLQ*, *SOC*와 *HPR*척도 간에 상관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22~.81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VDL*척도는 *PDL*, *PSY*척도, *ANX*척도는 *DEP*, *SOC* 척도, *DEP*척도는 *SOC*, *PSY*척도, *DLQ* 척도는 *HPR*, *PSY*척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관패턴은 각각의 임상척도들이 측정하는 정신병리의 공존질병을 및 부수적인 증상과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과 연령에 따른 척도점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DEP*와 *SOM* 척도점수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ERS*, *ANX* 척도점수는 여학생, *F*, *VDL*, *PDL*, *DLQ*, *HPR*,

FAM, *SOC*, *PSY* 척도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았다. *DEP*와 *SOM* 척도점수는 남녀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VDL*, *PDL*, *DLQ*, *HPR*, *PSY* 척도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다는 점에서는 아동용의 결과(홍상황, 황순택, 2004)와 일치하지만 아동용에서는 *ERS*, *ANX*, *FAM*, *SOC*의 척도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13개 척도점수 중 *F*, *ANX*, *DEP*, *SOM*, *DLQ*, *FAM*, *PSY* 척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F*, *DEP*, *DLQ*, *FAM* 척도점수는 4학년보다는 6학년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ANX* 척도점수는 5학년보다 6학년이 높았고, *SOM*, *PSY* 척도점수는 4, 5학년보다 6학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아동용에서 *ICN*, *F* 척도점수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결과와는 크게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아동의 자기보고 결과에서는 학년에 따른 임상척도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교사용에서는 일부 척도들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불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용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척도점수가 차이가 있고 아동용과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교사용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별도의 규준점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후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왜 연령증가에 따라 더 많은 임상적 문제를 지각하게 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과 심리적 적응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교사가 학교장면에서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평가를 하는데 유용하도록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의 교사용을 개발하여 타당화시키고 예비규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즉 교사용을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봄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부모용 및 아동용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상호보완적,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고, 실제 학교장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내거나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이 있을 경우 교사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전에 대상아동을 사전에 평가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척도별 이론적 구성요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사를 타당화할 때 이론적 구성요소를 밝히고 나아가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뿐 그 보다 더 어린 저학년 아동, 중학생 등 원래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부모용)에서 평가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많은 타당도지표를 사용하였는데, *VDL*, *PDL*, *FAM*과 같은 척도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타당도지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FAM* 척도는 분석결과 심리측정적인 속성이 양호하여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상식적 관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가족 기능과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10개 임상척도 중에서 *HPR*, *DLQ* 척도를 제외한 8개 척도는 수렴적 및 변별적 타당도가 확인되었으나, *HPR*, *DLQ* 척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도지표와의 상관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물론 *DLQ*척도는 뚜렷하게 비행, 공격성, 적대감, *HPR*척도는 부주의와 과잉행동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다른 척도들에 비해 척도간 상관에서도 교사용 .79, 아동보고용 .68로 매우 높았다. 이처럼 *HPR*, *DLQ* 척도가 원래 의도했던 영역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다른 타당도지표들과의 상관패턴이 유사하고 척도간 상관도 높다는 것은 이 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인 비행과 ADHD의 공존질병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변별적 속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임상척도들이 일관되게 행동차원척도(BDRS)의 무책임과 부주의, *Conners* 척도의 부주의성 피동성과 상관이 높고 상관계수가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척도의 변별 타당도와 임상척도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곽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KPI-C) 실시요강. 서울: 한국 가이던스.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 (2005).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서울: 한국 가이던스.

김하정 (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간의 평정 일치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마송희 (1991).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민성길, 김한중, 오경자, 이해련, 김진학, 신의진, 배주미, 김성은 (1997). 학교정신보건사업 모델 개발: 1. 학교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5), 812-825.
- 민성길, 오경자, 김한중, 이해련, 신의진, 이기연, 하은혜, 김소라, 배주미 (1997). 학교정신보건사업 모델개발: 2. 도시형 초등학교 정신보건사업 모델 개발. *신경정신의학*, 36(5), 826-840.
-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 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 235-248.
- 박은희, 소유경, 김영신, 최낙경, 김세주, 노주선, 고윤주 (2003). 한국어판 Conners 부모 및 교사용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예비적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 1-14.
- 박정원(1992). 교사평정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행동 특성에 대한 일연구: 중고재학생 비행 청소년과 교정시설 청소년을 비교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경희, 윤점룡, 윤치연, 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2000). 발달장애의 진단과 평가.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소유경, 노주선, 김영신, 고선규, 고윤주 (2002). 한국어판 부모, 교사 ADHD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1, 283-289.
- 송나리 (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수미, 김재환 (2002). ADHD 및 우울/불안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간 평정 일치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859-869.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자, 하은혜, 배주미, 김영아, 고려원 (1999). 학교정신보건사업의 두 가지 모델: 서대문구 학교정신보건사업과 오산시 초등학교 보건사업의 비교. *연세교육과학*, 47, 111-124.
- 윤현희, 홍창의, 이진환 (2001). 부모보고형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 33-53.
- 장은진, 한미라, 정철호 (2001).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자녀문제 지각간의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7, 268-277.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K-CBCL 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 3-12.
- 홍상황, 황순택 (2004).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용(KPI-C-R-CRF)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483-50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Edelbrock, C. (1986).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Teacher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Bird, H. R., Gould, M. S., & Staghezza, B. (1992). Aggregating data from multiple informants in child psychiatry epidemiological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 78-85.
- Bullock, L. M., & Wilson, M. J. (1989). *Behavior Dimensions Rating Scale: Examiner's manual*. Itasca, IL: Riverside.
- Conners, C. K. (1989). *Conner's Rating Scales manual*. North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162-170.
- DuPaul, G. J. (1991). Parent and teacher rating of ADHD symptom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ommunity-based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245-253.
- DuPaul, G. J., Rapport, M. D., & Perrillo, L. M. (1991). Teacher ratings of academic skills: The development of the 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School Psychology Review*, 20, 284-300.
- Edelbrock, C. S., Costello, A. J., Dulcan, M. K., Calabro, C., & Kala, R. (1986). Parent-child agreement on child psychiatric symptoms assessed via structured inter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181-190.
- Kolko, D. J., & Kazdin, A. E. (1993).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clinic and nonclinic children: Correspondence among child,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991-1006.
- Pease, D., Clark, S., & Crase, S. J. (1981). The social competency scale for preschool age children: Its development and factorial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851-861.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 and children's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hares, V., Compas, B. E., & Howell, D. C. (1989). Perspectives on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Psychological Assessment*, 1, 68-71.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s.
- Richters, J. E. (1992). Depressed mother as informants about their children: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for distor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85-499.
- Rutter, M., Tizard, J., & Whitmore, K. (1970). *Education, health, and behaviou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1999). *Mental health: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Washington, D.C.: Author.
- Ullmann, R. K., Sleator, E. K., & Sprague, R. L. (1985). Introduction to the use of the ACTeRs.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15-916.

Wirt, R. D., Lachar, D., Klinedinst, J. K., & Seat,
P. D. (1990). *Multidimensional description of
child personality: A manual for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원고접수일 : 2005. 7. 13

게재결정일 : 2005. 10. 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Teacher Form(KPRC-TF)

Sang-Hwang Hong

Departmen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on-Yeun Woo

Jinju Ibanseong
Elementary School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of children need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children's self-reports and ratings of the parents and teacher.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Teacher Form(KPRC-TF) and test the fundamental reliability and validity. Class teachers who had more than 3 years elementary school services career ($N=186$) rated the teacher rating form items for 1,399 fourth-sixth grade elementary schoolers. The split-half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cales, except *ICN* scale, ranged .78 ~.94, the medians of split-half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were .85, .86,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coefficients of children report form and parents rating form, the coefficients of split-half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teacher rating form were high overall, except *SOM* scale. 17 teachers rated 113 students twice at 4-week intervals to test the test-retest reliability. The test-retest reliability, except *ICN* scale, were ranged .75 ~.91. The median (.81) was high.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VDL*, *DLQ*, *HPR* scale score were higher than other scales' reliability which showed nearly similar score, compared with rating form for children. To test the reliability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12 scales of KPRC-TF, sample were divided into 11 small sample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KPRC-TF scales and various validity indices, the correlation were positively high with the indices measuring the original constructs which each scales proposed to measure. Contrary, there were negatively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s and indices which measure the contrast concepts. Finall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arents rating form and children report form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KPRC, personality assessment, teacher, children